



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, 서울시와 자살예방 추진 현황 점검

- 서울시는 ‘자살고위험 청소년 대상 전문심리상담’ 지원, ‘손목닥터 9988 內 마음건강검진 기능’ 탑재 등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운영 중

-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(본부장 송민섭, 이하 ‘생명본부’)는 9.17일(목) 서울특별시(이하 ‘서울시’)를 방문하여 지역 유관기관들과 함께 자살예방 대응체계 및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,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.
- 생명본부는 최근 자살 사망자 수 감소 추세*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8.14일(금)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두 달에 걸쳐 전국 16개 광역 시·도를 직접 방문하고 있다.
- * 자살사망자수(잠정)는 '26.상반기 중 전년동기 대비 849명 감소(9개월 연속 감소 추세)

❖ 천명지킴 현장소통 간담회 개요

- 일시·장소 : 2026. 9. 17.(목) 10:50, 서울시청
- 참석기관 : 서울시, 경찰청, 소방재난본부, 교육청, 자살예방센터 등
- 주요 내용 : 지역 자살예방 대응체계 점검, 현장 건의.애로사항 청취

-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‘생명돌봄 동행도시 서울’을 목표로 ‘예방-조기발견-위기대응-일상회복’ 4단계로 운영하는 생명안전망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,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.
- ① 우선,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하고, 자치구-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·자살예방센터·심리지원센터 등과 함께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 생명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.(☞ ‘참고1’)
- ② 또한 서울시는 올해 시민 누구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‘공공 마음상담소’*를 확대하였다(‘25년 11개소 → ’26년 17개소). 또한 자살고위험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**하였다.
- * 심리상담 진입장벽 해소,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자치구가 무료로 운영하는 마음상담소, 필요시 복지부의 정신건강 심리상담바우처 사업으로 연결

**** 다만, 고위험 청소년은 정신건강 심리상담바우처를 기본 8회(회당 8만원) 이외 **4회**를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**

- ③ 끝으로 서울시는 ‘손목닥터 9988’ 內 마음건강검진 기능을 탑재하여 서울시민이 자가검진*을 통해 위험신호를 조기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 검진 결과 고위험자는 보건소(대상자의 주소지 기준)로 연계**되고, 필요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.(☎ ‘참고2’)

* ‘25년 ‘손목닥터 9988’을 통해 마음건강검진을 받은 자는 100만명

** 우울, 불안, 자살행동척도검사 결과 고위험군 연계

- 송민섭 본부장은 “서울의 생명안전망 단계별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선도적인 모범 사례로, 특히 ‘마음상담소’와 ‘손목닥터 9988’은 일상 속에서 자살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.”며,
- “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중앙·지방 정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는 만큼, 서울시의 우수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홍보를 적극 지원하겠다.”고 밝혔다.

※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,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☎109, 청소년 상담 전화 ☎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법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	책임자	과 장	성기철 (044-200-6371)
		담당자	서기관	유승은 (044-200-6390)

참고1

서울시 생명안전망 개요

- **일상예방** 일상예방 · 관계회복을 통한 선제적 자살예방
 - **외로움안녕120** 365일 24시간 운영, 개소 후 누적 상담 4만 건 이상
 - **서울마음편의점** 19개소 운영, '26.7월 말 누적 14만4천여 명 이용
 - ▶ '25년 4개소에서 '26년 19개소로 확대, 하반기 25개소 확대 예정
- **조기발견** 일상 속 마음건강 조기검진 및 고위험군 발굴
 - **손목닥터9988**에 우울·불안·자살행동·스트레스 등 10종 마음건강검진 제공
 - ▶ '25년 마음건강검진 약 100만 건 이용
 - **마음상담소** 17개소 운영, '26.7월까지 17,477건 상담
- **위기대응** 24시간 정신응급 위기대응체계 강화
 - '22년 전국 최초 24시간 **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** 개소·운영
 -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·정신건강전문요원 공동 현장출동
 - ▶ '26.7월 말 기준 야간·휴일 457건 현장출동, 216명 응급입원 연계
 - **정신응급 병상 33개** 상시 확보, '26.7월까지 자살위기 등 905명 응급입원 지원
 - 시립은평병원 및 고양·백암정신병원 등 공공병원 간 정신응급 협력체계 구축
- **일상회복** 자살고위험군 치료 및 일상회복 지원
 - 자살유족 지원모임 「**자작나무**」 운영, 유족 448명 참여
 - 긴급지원부터 애도상담·자조모임·동료지원까지 단계별 회복 프로그램 운영

일상예방 · 관계회복	조기발견	위기대응	일상회복
온라인 외로움안녕120 오프라인 서울마음편의점	온라인 손목닥터9988 온라인 AI상담챗봇 '마음이' 온라인 카카오톡 '이음톡' 오프라인 생명이음청진기 오프라인 마음상담소·상담바우처	온라인 1577-0199 오프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오프라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오프라인 상시 정신응급병상	온라인 오프라인 생명자킴이 교육 오프라인 자살유족 지원 오프라인 숙립소반기찬 판매소 등 지역협력

추진
기반

서울시 + 자치구 +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+ 광역자살예방센터 + 광역심리지원센터

생 명 지 킴 이

자살유족 지원모임

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

□ 추진배경

- 최근 우울·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증가에 따라 시민의 마음건강을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
 - 서울시민 스트레스 인지율 24.0%(전국 대비 +1.6%p), 우울감 경험률 7.5%(전국 대비 +0.7%p), 자살 생각 경험률은 6.6%¹⁾

✓ 정신질환의 조기발견·개입의 첫 단계인 정신건강검진 활성화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검진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

□ 사업개요

- 사업대상 : 서울시민 누구나
- 추진방법 : 손목닥터9988 앱에 마음건강검진 10종 탑재
- 시행시기 : '24. 9. 30.
- 주요내용 : 마음건강검진 제공 및 정신건강서비스 연계
 - 10종(우울, 불안, 자살행동척도, 스트레스, 사건충격도, 알코올중독, 삶의질, 조기정신증, 식사태도검사,조울증)
 - 정상군** 검진결과 확인 후 정신건강정보 이용 안내(손목닥터9988 앱)
 - 위험군** **검진 3종(우울, 불안, 자살행동척도)** '도움 요청대상자' 보건소 연계(전담인력 e-mail)
 - * 검진 3종 도움 요청 시, 1개월 후 재요청 가능하도록 설정

□ 추진내용

- 손목닥터9988 마음건강검진 연계 관리를 위한 **전담인력 배치**
 - (전담인력) 검진 후 '도움 요청하기'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 연계
 - (사후관리) 3일 내 연락하여 초기상담평가 실시,
지속관리 필요시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사업 의뢰서발급 및 기
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
- 전 대상자에게 우울·불안 자가관리를 위한 온라인 정신건강 프로그램 상시
제공 ※ 서울시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블루터치, 마음터치 블루/그린 5주 운영

1)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